

■ 2017~2018년 상반기 공연장 대관 심의 총평

○ 일시 및 장소

- 1차 연극 : 2017. 1. 19(목) 13:30~, 아르코예술극장 지상2층 회의실
- 1차 무용 : 2017. 1. 20(금) 13:30~, 아르코예술극장 지상2층 회의실
- 2차 통합 : 2017. 1. 24(화) 13:30~, 아르코예술극장 지상2층 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구태환, 김예림, 박재홍, 백하룡, 심재민, 안애순, 이경옥, 이봉규, 이제승

2017~2018년 상반기 공연장 대관 공모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4개 공연장(아르코예술극장 대·소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대·소극장)을 대상으로 신청한 총 269건의 대관 신청 서류를 심의하였다. 올해 대관 신청규모는 전년도에 167건이 신청되었던 것에 반해 102건(전년대비 61% 증)이나 증가되어 대폭 늘어났다.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임대운영하였던 재대관공연장 7곳이 계약만료로 더 이상 대관이 어려워지자 그 공연장의 대관수요가 4개 공연장에 추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분야별 신청은 연극 118건, 무용 108건, 뮤지컬 23건, 기타 20건으로 연극과 무용 분야의 신청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심의는 1차 연극, 무용 분야별 심의를 진행하였고, 1차 분야별 심의에서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2차 통합심의를 개최하였다. 뮤지컬과 기타분야는 연극분야 심의에서 통합하여 심의하였다.

1차 연극분야 심의에서는 우수 공연들의 대관 신청 시기가 중복되는 문제로 인하여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청 작품의 우수성과 극단의 신뢰성을 중점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았으며, 초연과 재연을 가리지 않고 심사하였다. 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장기대관을 원칙으로 하지만, 동일 시기(특히 4~5월)에 지나치게 신청이 편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극단들 사이에 기간의 상호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의 융통성 발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지배적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공공극장이라는 공연장 성격상 전국 단위 규모의 축제 및 행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 단체가 신청한 여러 건들 중에서 과도하게 긴 기간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건별로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1차 무용분야 심의에는 역사성을 가진 고정적 축제와 행사를 고려하였으며, 독립적 작가로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무용가 및 민간단체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작산실 재공연작으로 선정되거나, 기금 지원에 선정되었음에도 극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눈에 띄었다. 심의에서는 지원과 대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다수 심의위원들이 공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 무용을 펼칠 수 있는 공연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용 중심극장의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모든 심의위원들이 동의하였다.

통합 심의에서는 연극의 경우 창작신작을 먼저 배려하고자 애썼으며, 공연단체의 신뢰성과 안정감을 염두에 두고 심의하였다. 2017년 6월부터 시작되는 아르코예술극장 대·소극장 리노베이션 공사로 인해 대관기간이 줄어 우수 공연작품도 아쉽게 대관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용공연의 경우 무용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연습에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2~3일의 단기 대관을 지양하고, 최소 1주 이상을 대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에 몇 개 단체의 경우 대관 기간 및 공연장을 변경하여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대관 공모는 많은 좋은 작품이 선정되어 경합율이 높았다. 이번 대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기대해 본다.

공연장 대관 심의위원 일동